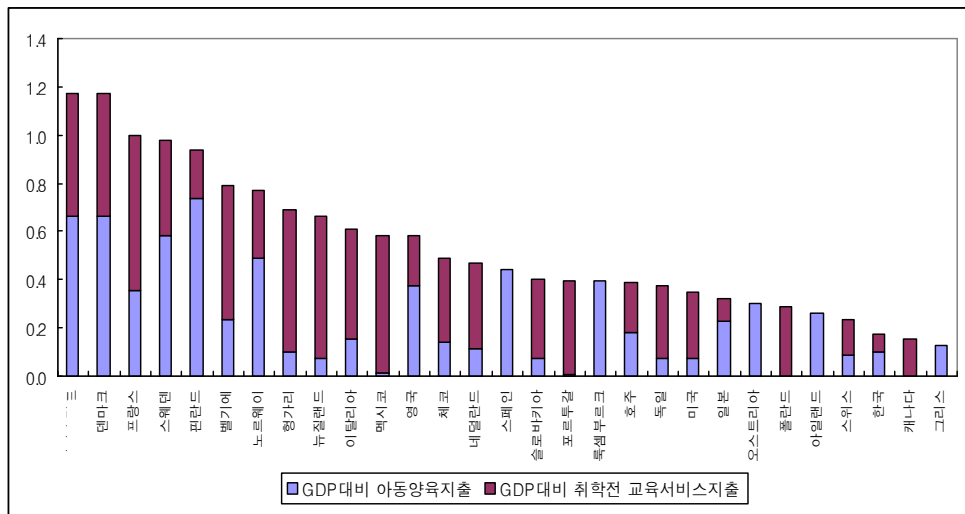


OECD국가의 아동지원 수준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 OECD 30개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아동지원서비스 지출 수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취학전 교육서비스 지출 및 아동양육 지출 수준은 GDP 대비 0.2%로 스위스, 캐나다 등과 함께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아이슬란드,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의 경우 아동교육 및 양육과 관련된 공공지출 수준이 전체 GDP 대비 1.0%를 상회하고 있음.
- OECD 주요국의 아동지원 수준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하면, 취학전 아동에 대한 정부지출 수준 및 아동양육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관계가 나타남.
 -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서비스 지출 수준이 3,500달러 이상 14개국(뉴질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등)의 평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9.5%로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멕시코 등 3,500달러 미만 10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낮음(표 1 참조).

[그림 1]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아동지원서비스 지출 비중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각국 2005년경 자료임).
 (2009), *OECD Employment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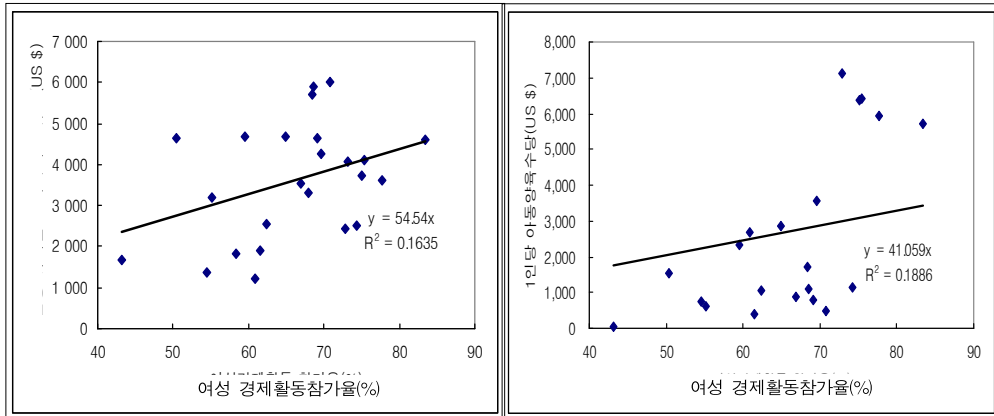
〈표 1〉 OECD 주요국의 취학전 교육서비스 및 아동양육비 정부지출 규모

	1인당 취학전 아동교육서비스 지출규모 (ppp환율 기준)	1인당 아동양육수당 규모 (ppp환율 기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호주	5,709	1,726	68.4
벨기에	4,698	2,333	59.5
캐나다	4,052		73.1
체코	2,550	1,073	62.4
덴마크	3,743	6,376	75.1
핀란드	2,420	7,118	72.9
프랑스	4,679	2,858	64.9
독일	3,538	860	66.9
헝가리	3,204	620	55.1
아이슬란드	4,589	5,733	83.4
이탈리아	4,626	1,558	50.4
일본	1,207	2,683	60.8
한국	1,375	754	54.5
멕시코	1,684	23	43.2
네덜란드	5,881	1,092	68.6
뉴질랜드	6,001	476	70.8
노르웨이	4,127	6,425	75.4
폴란드	1,830		58.3
포르투갈	3,293		67.9
슬로바키아	1,909	414	61.5
스웨덴	3,627	5,928	77.7
스위스	2,515	1,129	74.3
영국	4,255	3,563	69.6
미국	4,660	794	69.2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www.oecd.org/dataoecd/44/20/38954032.xls).

- 아동양육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이 2,500달러 이상 8개국(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2.5%인 반면, 2,500달러 미만인 13개국(한국, 미국, 독일 등)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이 비교대상 국가에 비해 낮고 절대규모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제고를 위해 아동양육과 교육에 대한 가족책임과 역할이 강조되어 왔던 전통에서 벗어나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해 보임. **KLI**

[그림 2] 아동지원 수준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

(반정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